

# 지역발전위원회 중국 거대 경제권 해외 연수 국외출장보고서

## I. 국외 출장개요

### 1. 목적

- 중국광역계획 사례 연구
-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역할과 거버넌스체계 연구
- 광역경제권 사업관련 담당자 국내외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

### 2. 출장개요

- 대상국 : 중국
- 기간 : 2009. 11. 15 ~ 11. 21(6박7일)
- 참가자 : 지역발전위원회, 산업연구원, 테크노파크, 지역발전연구원, 한국산업기술포럼 등 20명
- 주요일정
  - 11월 16일 톈진 빈하이 신구 관리위원회 방문
  - 11월 17일 상하이 푸동신구정부 방문
  - 11월 18일 쑤저우 공업원구 방문
  - 11월 20일 광둥성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 방문 및 광저우 총영사 면담

## II. 기관방문(지) 현황

### 1. 텐진 빈하이 신구

#### □ 개요

- 위치 : 텐진시 동쪽 해안지역으로 시 중심으로부터 50km 거리에 위치
- 면적 : 2,270km<sup>2</sup>(텐진시의 20.1%)
- 인구 : 107만명(텐진시의 10.5%)
- 행정기구 : 빈하이신구 관리위원회 (3국 2실)
  - 3국 : 경제계획발전국, 기획건설발전국, 투융자발전국
  - 2실 : 관공실, 정책법규연구실
- 주요산업 : 전자통신, 석유개발, 해양화학, 야금, 기계제조, 제약, 식품가공
- 주요기업 : 삼성전자, 모토로라, 도요타, 마쯔시다, 코카콜라, 하니웰 등

#### □ 개발전략

- 빈하이 하이테크구역은 면적 25km<sup>2</sup>로 첨단산업의 R&D산업화를 중심으로 발전
- 항구인근지역은 200km<sup>2</sup>로 장비제조, 항만물류 및 기타 항만 관련 산업들이 집적
- 구린(古林)공업구역의 계획면적은 120km<sup>2</sup>로 석유화학, 해양화학, 정밀화학과 현대야금을 중점적으로 집적
- 중심상업구(10km<sup>2</sup>)는 금융보험과 비즈니스 상업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
- 이밖에 100km<sup>2</sup>에 달하는 항만물류구역은 해양운수, 국제무역, 보세창고, 분리배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서비스업을 발전
- 빈하이관광구 육지계획면적 45km<sup>2</sup>와 해역 75km<sup>2</sup>는 해양관광, 리조트, 습지생태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

## 2. 중국의 경제 창구 상하이 푸둥신구

### □ 개요

- 위치 : 상하이 시내를 관통하는 황포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푸둥, 서쪽을 푸서라 함
- 인구 : 420만 명
- 면적 : 1500km<sup>2</sup>
- 특징 : 상하이 경제, 인구, 공업의 1/4를 차지

### □ 개발연혁

1984년	상하이경제발전전략보고서 제출(상하이시→중국정부) - 중국정부에 의해 푸둥지역의 개발이 본격 거론
1988년	푸둥개발 국제 심포지움 개최 - 당시 상하이시 공산당서기로 있던 江澤民과 상하이 시장이던 朱鎔基에 의해 개최되어, 대외적으로 개발계획 공개
1990년	"푸둥신구"로 명명하고 자금 및 정책적 지원 결정(중국공산당 중앙위)
1992년	상하이개발 기본구상(공산당 제14회 당대회) - '세계를 향한, 21세기를 향한, 현대화를 향한'이란 기치하에 상하이시를 21세기 중국경제의 중심지이자 태평양서안의 금융, 무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 제시
1993년	푸둥신구관리위원회 설립 - 위원회 산하에 10여부서가 설치됨으로써 푸둥은 상하이시 속의 또 다른 작은 상하이로 관리되는 단계로 진입

### □ 개발과정

1단계 (‘91-‘95)	개발초기단계 - 4개의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
2단계 (‘96-‘00)	중점개발단계 -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, 비교적 완비된 일차적 푸둥신구 형성
3단계 (‘01-‘10)	전면적 개발단계 - 개방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·무역·과학기술정보 중심지로 발전

### 3. 광역경제권 연계기업 유치 성과 사례학습

#### □ 개요

- 위치 : 상하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거리
- 인구 31만명(2008년 기준)
- 면적 : 288km<sup>2</sup>
- 발전목표
  -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 공업단지와 국제화·현대화·정보화 된 생태형, 창신형의 새로운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갖춰 경쟁력이 제일 강한 개발구로 발전
- 개발주체 : 중국-싱가포르 쑤저우공업원구개발유한공사

#### □ 공업원구의 발전방향

- 에너지절약형, 친환경 생태시범구
- 연구개발센터와 고신기술산업집결 효과를 극대화한 과학기술시범구
- 현대상업무역물류운영센터 시범구
- 다국적기업의 아웃소싱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서비스아웃소싱시범구

### III. 시사점

#### □ 제주특별광역경제권 투자유치 전략

-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은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서 관광, 청정농업, 교육, 의료 및 첨단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, 이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 - 그러나 제주지역은 토착자본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대부분의 사업은 외자유치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
- ⇒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여짐

- 토착자본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외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이로 인해 개발편익 중 상당한 자본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
    - 한국은행(2006)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00~2005년 중 연평균 2,721억원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
    - 한편 김정완(2004)의 연구에서는 2001년 제주지역 생산의 역외 유출 규모가 1,057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
- ⇒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외자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문제가 되면서 외자유치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음

- 중국은 각종의 우대정책이 포함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"시장과 기술의 교환"이라는 논리를 제공함
-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핵심기술 이전을 주저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도입 정책에 대한 회의가 제기됨
- 결국, 중국은 외자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였던 외자기업 유입에 의한 기술축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시장만 외자기업에게 제공하였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표면화되고 있음
- 중국 주요 품목의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
  - 통신설비산업의 경우,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률은 82%, 필름 85%, 디지털카메라 85% 등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- 이러한 외자유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축소가 주요 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바, 중국의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외자유치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 - ⇒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'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'과 같이, 제주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
  - 투자유치 업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외자유치 장려 사업을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  - 기존의 제주지역 내 수요(ex: 국내관광수요)를 잠식하는 사업

- 새로운 수요(ex: 국제관광수요)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
-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선도산업(또는 핵심산업) 육성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 등

#### □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선도산업 육성

- 중국이 1990년대 이후 추진한 외자유치정책 방향이 주는 시사점을 확대 해석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선도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논하고자 함
- 현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 전략이 수립·시행되고 있음
  -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기업 이전 및 유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상의 선도산업 육성 전략은 주로 R&D 투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
- 선도산업 관련 기업 이전 및 유치를 위해서는 R&D 투자 뿐만 아니라 선도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권역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
  - 선도산업 육성 초기에는 권역별 차등적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선도산업 관련 독점 기반을 마련해야줘야 한다고 보여짐
  - 제주의 선도산업인 물산업 육성 사업을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
    - 제주의 물산업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제주 맥주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
    - 맥주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R&D 투자 보다는 주세율 경감 등의 규제 완화가 기업 유치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여짐
  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율 경감을 형평성의 논리로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면 제주의 맥주개발사업은 독점력을 잃게 될 것이고,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의 제주 이전 유인은 사라지게 됨

□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

- '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'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며, 1995년 6월 처음 공포함
  - 이후 3차에 걸쳐 수정작업이 진행되었고,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에 개정된 것임
  - 중국은 WTO 가입 이후, 지난 2002년 한차례 조정을 거친 후, 2004년 과잉투자 억제, 첨단산업 장려, 서비스업 개방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표함
  - 최초 공포당시에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, 허가, 제한, 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, 2004년부터는 장려, 제한, 금지 등 3종류로 구분함
- 최근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또한 부분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
<표 1>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 인허가 목록

구분	내 용
장려 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 신기술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·교통·주요원자재 공업에 속한 것</li> <li>- 하이테크기술·선진적용기술에 속하여 제품성능 개선·기업기술경제효율성 제고 혹은 국내생산능력이 부족한 신설비·신자재 생산을 할 수 있는 것</li> <li>- 시장수용에 부응하여 제품등급의 제고·신흥시장의 개척 혹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</li> <li>- 신기술·신설비에 속하고 에너지와 원자재의 절약·자원과 재생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</li> <li>-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발휘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것</li> <li>- 법률·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사항</li> </ul>
제한 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수준이 낙후된 것</li> <li>- 자원절약과 생태계환경에 불리한 것</li> <li>-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개발을 행하는 특정광산 관측·채굴인 것</li> <li>- 국가가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한 것</li> <li>- 법률·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사항</li> </ul>
금지 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안전의 위해 혹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</li> <li>- 환경에 대해서 오염을 조성하여 해를 끼치고, 자연자원의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</li> <li>- 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토지자원의 보호·개발에 불리한 것</li> <li>- 군사시설 안전과 효율적 이용에 위해가 되는 것</li> <li>- 중국 특유의 공예 혹은 생산제품기술에 운용되는 것</li> <li>- 법률·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사항</li> </ul>